

우리는 영웅을 꿈꾼다. 때로는 지배권력의 필요에 의해, 때로는 일상으로부터의 탈주를 위해, 영웅을 만들어내고 또 소비한다. 난중일기의 주인공 이순신은 한때 그러한 시대적 산물이었다. 군사정권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답답한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시청자들을 현혹하는 소재로, 난중일기의 이순신은 그렇게 이용당해 왔다. 그렇기에 난중일기를 우연찮게 접하면서 그렇게 활용되어 온 상징적 기호로서의 ‘이순신’에 대한 불편함이 내 마음의 한 가운데에 무겁게 자리 잡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난중일기’의 책장을 넘기면서 내가 기존에 가진 생각이 얼마나 편향된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단백하면서도 간결한 글 속에서 나는 윤색된 영웅 ‘이순신’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뇌하고 고투하는 인간 ‘이순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조선 중기는 문란해진 국정으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군기가 무너지고 성곽과 군사 기반시설이 노후화를 면치 못하는, 즉 국정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군대를 정비하고자 노심초사하며, 때로는 매질로 악역을 담당했던 이순신 장군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읽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난중일기의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원균에 대한 이순신의 다소 과해 보이는 듯한 분노도, 원균이 기존의 무책임한 지배층의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 심정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한 자신과 인연을 맺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인간적 충실함 역시, 영웅이 아닌 인간 ‘이순신’의 면모로서 읽는 내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난중일기를 읽는 내내, ‘왜 나는 이제까지 이순신의 진면목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분명 나의 개인적 게으름의 탓도 있겠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화신으로 이미지화된 ‘이순신’에 대한 마음 한 구석의 거부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기호화된 ‘이순신’, 박제화된 ‘이순신’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아니 바로 난중일기 속에서 펄펄 살아 숨쉬고 있는 이순신을 후속 세대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미래에 준비하고 원칙에 충실한 모습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나를 비롯한 젊은 세대들이 정말 본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 바로 그 이순신을 ‘이용’과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사표’로서 자리매김한다면, 정말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난중일기를 읽으며 나는 난중일기가 가진 기록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당시의 우리 선조들의 삶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아마도 인간 이순신의 세심하고 꼼꼼한 생활 태도가 반영되어 이렇듯 훌륭한 기록물이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난중일기가 특히 돋보이는 점은, 인류 문화 유산으로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이순신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보인 실존적 모습은 동서고금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반영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조선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의 반영은 난중일기가 가진 고유한 특수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난중일기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후속 세대에겐 진정한 롤모델로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순신을 접근 데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경 속에서 고난을 이겨낸 한 사람의 실존은 결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의 낡은 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번을 양보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적 프레임의 최소한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요즈음 회자되는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참고했으면 한다. 즉, 이순신을 민족적 영웅, 군사적 영웅으로 보는 입장이 전제하는 ‘하드 파워’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당시 시대적인 특수한 맥락에서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인류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킨 문화적 영웅이나 인간적 영웅으로 이순신을 재정립하자는 이야기다.

덧붙여, 후속 세대를 위한 고전 교육 강화의 중요성을, 이번 난중일기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고전을 통해, 권력과 매체에 의해 특정의 방식으로 화석화된 역사적 인물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난중일기와의 만남은 여러모로 뜻깊고 소중한 기회였다. 분철된 ‘이순신’이 아닌, 난중일기에서 살아 숨쉬는 이순신과의 만남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갖고, 내가 느낀 감동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다.